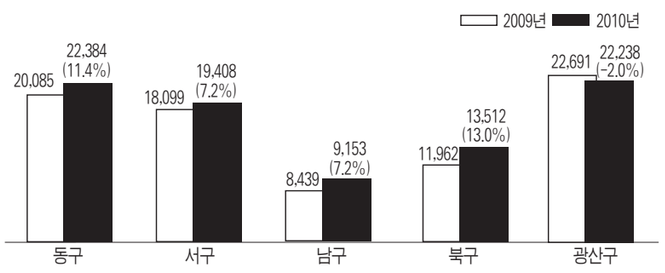
광주 생산도시 가속화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특별·광역시중 1위 지역 총생산 25조원

■ 광주 자치구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증감률 (단위:천원)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이 7대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광주시가 생산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액은 6조6565억원으로 전년도 4조7928억원에 비해 38.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인천 19% ▲대구 18.7% ▲울산 15.9% ▲대전 14.4% ▲서울 13.9% ▲부산 12.6%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이다.

분야별 생산액 증가율을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전년 보다 350%(4499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5%, 전기 장비 제조업 4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6% 순이었다.

반면, 음료 제조업과 의복관련 제조업, 담배 제조업은 각각 -26.5%, -7.8%, -2.8% 감소했다.

광주시의 제조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8%에서 2010년 28.8%로, 5%포인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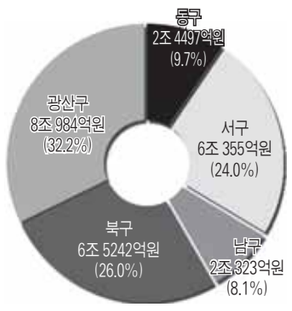
2010년 기준 광주시의 지역 총생산(GRDP)은 25조1400억원으로 전년도 22조661억원보다 13.9%인 3조739억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GRDP는 ▲광산구 8조984억원 ▲북구 6조5242억원 ▲서구 6조355억원 ▲동구 2조4497억원 ▲남구 2조323억원 순이었다. GRDP 증가율은 광산구가 20.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북구 14%, 남구 11.3%, 동구 10.4%, 서구 8.7% 순이었다.

반면, 1인당 GRDP는 동구가 223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산구 2224만원, 서구 1941만원, 북구 1351만원, 남구 915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2010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 증설과 금호타이어의 생산량 증가, 광산업을 비롯한 전기장비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광주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규모



광주시 GRDP: 25조1400억원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산업육성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등 소비도시 광주가 점차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적조 이어 31도 고수온…전남 해안 '비상'

완도서 전복 170만마리 폐사

전남지역 바닷물 온도가 최고 31℃까지 치솟으면서 완도에서 전복 170만마리(전남도 추정)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

이 지역에서 바닷물 고수온 피해가 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는 적조마저 넓게 퍼져 있어 전복 주산지인 완도지역 양식장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와 남서해수산연구소는 19일 "고흥군 금산 일대에서 지난 16일 폐사한 전복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아가미에서 적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고수온으로 떼죽음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 지역 바닷물 온도가 27℃ 이상 20여일 가량 지속되면서 고수온으로 전복 등 어류가 아사 상태이기 때문에 적조가 덮친다면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년 8월 바다 온도는 10일만에 1℃가량 올라 8월5일~10일 최고 온도를 기록하지만 올해는 하루만에 1℃ 이상 올르는 등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는 평균 8월 온도보다 2~3℃가량 높아 지난 18일 장흥의 바닷물은 31℃까지 치솟았다.

전복은 27℃ 이상 바닷물이 지속되면 위험하고, 완도는 전남지역 전복 생산량의 80%를 양식하고 있어 남서해수산연구소가 완도지역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현재 ▲여수 화태·월호·송도·함구미·용머리·개도·제도 ▲고흥 장예·지선·금산·오천·옥룡·신촌 ▲완도 신지~약산, 당목·섬어두·금일 ▲장흥 대덕·내저·진목·노력·관산·우산·대리 등 4개 해역에 적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완도 인근까지 적조띠가 퍼져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전남도 20~23일 을지연습

광주시와 전남도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2012 을지연습'을 군사연습과 병행해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45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을지연습은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위기대응훈련, 도시 핵심기반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실제훈련 등과 함께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전시임무 수행절차 훈련이 이뤄진다.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주민대피와 차량훈련 통제훈련도 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

동림IC 연결로 개통

호남고속도로와 빛고을로 연장노선인 동림IC~북광주IC(총연장 7.62㎞)를 잇는 동림IC 연결로가 지난 16일 개통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이 도로가 지난 7월31일 개통된 동림IC~신용교차로(1.8㎞) 구간과 함께 광주시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빗물 모아 공중화장실용으로 전남도, 400곳에 집수정 설치

전남도가 빗물을 모아 공원이나 관광지 공중화장실에서 쓰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1000여 곳 가운데 우선 400곳에 빗물 집수정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빗물 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시설, 펌프, 송배수관 등으로 구성된다. 저장 규모는 3~10t가량이며,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에 따라 도서 식수용이나 농사용, 학교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박차

칠게, 농게, 망둥이, 갯지렁이 등 다양한 생명과 뻘배 등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북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19일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3차 포럼을 20일 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가치와 보호·관리체계 연구 방안, 지역별 현황 등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지질학적 가치, 생물종 다양성, 문화 다양성 등이 강조될 예정이다.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고, 2010년 잠정목록에 올랐다. 전남도는 4·5차 포럼을 오는 9월~12월께 열 예정이며 이후 등재추진위 구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 올 연말 안에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이 된 서남해안 갯벌은 무안·보성·순천, 전북 고창·부안 등지와 신안 다도해 지역의 섬 지역이다.

한편 전남에는 현재 화순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일하게 등재돼 있고, 잠정목록에는 자연유산으로 갯벌 이외에 남해안 공룡화석지, 문화유산으로는 강진 고려청자요지, 염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 등) 등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시장 내년 국비 2조4천억 확보 잰걸음

강운태 광주시장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심부지역(지하 4~5㎞를 시추해 지열을 활용, 전력을 생산함)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소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김 총리에게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한 광주설립 준비단 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국비 20억원을 요청했다. 홍 장관에게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차세대 광융합 기반구축(150억원)과 LED조명 시범특화도시 지정(80억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에게는 차세대 광융합 기반구축(15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30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610억원),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163억원)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내년 사업을 위해 국비 2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 림

제70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4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강당

김찬종 교수의 '성조숙증의 적절한 대처방법'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4일 제70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김찬종 교수의 '빨라지는 사춘기, 성조숙증의 적절한 대처방법'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소아청소년과 김찬종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성조숙증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의 증상 및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27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빨라지는 사춘기, 성조숙증의 적절한 대처방법'
■ 강 사 : 김찬종 소아청소년과 교수

-대한소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외협력이사
-대한소아신장학회 -미국내분비학회
-유럽소아내분비학회
-소아내분비·성장클리닉·비만 전문진료

■ 일 시 : 8월 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무지외반증 수술 후 급성 통증이 있는 피험자에 대한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급성 통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
▶무지외반증 수술 예정인 만 20세에서 80세 남녀
▶무지외반증 수술 후 급성 통증이 있는 피험자
임상시험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한 지원자 중 신체검사 및 기타 검사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피험자

참여 시 제공사항
▶임상시험과 관계된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시험기관 방문 및 검사 진행을 위한 소정의 교통비 (주차비 포함) 지원
▶제 1일부터 4일까지의 입원비 (입원비는 병실료와 식비 실비) 지원 / 임상시험약 제공

참여 기관 및 연락처
연 락 처 : 02)2094-4865
참여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메리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운영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을지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인사말씀

이번 母親(故 金愛順)喪事時 바쁘신 중에도 鄭重 하신 弔意를 베풀어 주신 여러 어른신께 感謝를 드립니다。
慌忙中 일일이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지면을 통해 고개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12年 8月 20日

嗣子 黃載淳
子婦 林世蓮順
婿 車一媛順
李 許 成 珉 宰 皓 萬 廷 順 好 順

當社 黃載淳 代表理事 母親(故 金愛順) 葬禮式이 여러분의 후의와 애도속에 지난 15일 嚴修되었습니다。
當日 公·私間에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시어 葬禮節次를 지켜 보아주신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2012年 8月 20日

푸른건설 주식회사

當社 梨谷 許宰晧 會長님 丈母(故 金愛順) 葬禮式이 여러분의 후의와 애도속에 지난 15일 嚴修되었습니다。
當日 公·私間에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시어 葬禮節次를 지켜 보아주신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2012年 8月 20日

大洲그룹
光州日報社
담양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H·H개발(주)
H·H레저(주)